

안전협회, 해외 업무 확대를 위한 활발한 활동 전개

- APOSHO 정회원으로 승인 -



▲ 본계시 질량기술감독국 방문



▲ 제19차 APOSHO 참가

안전협회 이홍지 회장을 비롯한 수행원은 8월 26일 중국 현지로 떠났다. 중국 본계시 질량기술감독국과 심양 요녕성 안전과학연구원을 방문하여 협회 업무 확대를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질량기술감독국과는 중국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일러, 압력용기 등에 대한 검사부문의 공동투자에 대해 시설, 장비 및 사무실 설치에 있어 점차적인 업무 교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고, 협회 방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안전과학연구원과는 기업안전보건관리 및 인증사업의 공동추진과 관련하여 중국내 기업에 대하여 공동컨설팅 및 인증업무를 수행한 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10월에 다시 접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안전협회는 9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9차 APOSHO 대회에 참가하였다. 4일간 각종 미팅과 세미나가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협회(KISA)가 APOSHO 정회원으로 정식 승인되었다. 금번에 가입한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 APOSHO(Asia-Pacifi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는 아시아 각국 산업현장에서의 각종 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국제 비영리 기관으로 각국 안전관련 단체들이 정회원으로 구성된 국제 단체이다.

2003년 KT 건설현장 최상의 안전관리 달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강사가 참여하여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지난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대전시 유성구 아드리아 호텔에서 “건설현장 최상의 안전관리 달성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KT 건설사업단이 추진하고, 안전협회가 주관한 행사로 KT에서 발주한 전국 건설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안전협회 이흥지 회장과 KT 건설사업단의 송상헌 건설단장을 비롯해 삼부토건(주) 이태병 소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이신재 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 전문

광주전남지회,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 과정 개설을 통한 교육



산업현장의 욕구해소에 큰 도움을 주이 된 교육으로 평가되었다. 처음 시행되는 이날 교육은 금호타이어(주) 곡성공장, IG이노텍(주) 등 대기업 소속 근로자 5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많은 관심과 호응속에서 진행되었다.

안전협회 광주전남지회(김영옥 국장)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선진 예방프로그램의 실습과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재활·복귀를 위해 응용 프로그램을 현장에 도입시키고,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2003년 제1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 과정”을 지난 8월 20일부터 3일간 광주무역회관 12층 강당에서 교육하였다.

이번 교육은 광주지역 산업현장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요원 교육



장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안전협회는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규칙” 고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2일간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요원 교육을 가졌다.

안전기술국 이봉수 국장을 비롯해 전국 각 지회 직원 21명에 대한 이번 교육에서는 개정된 근골격계관련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을 비롯해 근골격계 진단기법·실습,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등 전반적인 지식 전달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산업현

안전협회 회원사 및 대행 사업장, 무재해 잇따라 달성

안전협회는 회원사 및 대행 사업장에서 최근 잇따른 무재해 달성과 관련하여 KISA 무재해 달성탑과 무재해 달성기를 지급하고, 무재해 운동 활성을 독려했다.

무재해를 달성하고 무재해 달성탑 및 달성기를 수여받은 업체로는 ▲(주)지엔택(정봉규 대표이사, 무재해 5배 달성) ▲대상사료(주)정읍공장(이종무 대표이사, 무재해 3배 달성) ▲광일기업(주)김현진 현장소장, 무재해 10배 달성) ▲(주)IG실트론 1공장(정두호 대표이사, 무재해 10배 달성) ▲(주)IG실트론 2공장(정두호 대표이사, 무재해 3배 달성)이 있다.

2004년 교육과정 심의 회의 개최

안전협회는 9월 17일에 『“고객과 시장 중심” Process System으로 교육사업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업장 안전관리 선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한 2004년도 교육과정 심의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구해운 기술이사를 의장으로 하고,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이영순 교수, 한국전력공사 재난안전팀 정치교 과장을 비롯해, 안전기술국 이봉수 국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을 비롯한 지회 교육과정 총 6과정과 주문형 맞춤교육, 중앙회 전문화교육과정 4과정 등에 대해 교재 편찬 방향이 제시되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의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으로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원자들 중 지난 9월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 재개시까지 공단에 납부해야 할 이자를 경감해 주고, 수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 공단에서는 태풍 피해 발생 지역 관할 지사를 통해 지원자의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수해로 영업을 중단한 지원자에 대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할 이자를 최장 3개월간(최고 187만5천원) 면제해 줄 계획이다. 이자 면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점포운영자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피해 상황과 함께 이자 납부 특례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공단이 동 임금을 대신 지급해준 사업체에 대하여는 이의 변제를 사업체 정상 가동시까지 납부유예할 방침이다. 변제금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 10.3% 인상

9월 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하루 33,570원에서 37,020원으로 10.3% 인상되었다. 노동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고시하였다.

고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전년도 33,570원에서 37,020원으로 10.3% 인상되었고, 최저보상기준이 적용되는 장해·유족급여의 경우 '02년 기준으로 볼 때 장해·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의 25%에 이르는 10,5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33,070원에서 9.6% 상승되어 145,800원이며 전년도 인상분 4.7%에 비하여 대폭 인상되었고, 장의비의 최고금액은 9,932,840원, 최저금액은 6,669,440원으로 각각 7.2%, 6.2% 인상되었다.

『간병료』는 요양중인 환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 4.7%가 상승되어 간호사 48,47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는 35,100원, 가족·기타 간병인의 경우 33,600원이 지급되며,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병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철야간병시 50%가 간병료에 가산된다.

『간병급여』는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5.3% 인상되어 상시간병의 경우 33,600원, 수시간병의 경우 22,400원이 지급된다. 